

제12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1. 일 시 : 2009. 4. 23(목), 14:00~17:25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10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이원희 부의장, 이순일, 유승익, 오상탁, 이화숙, 최인규, 김찬영, 김관균, 이해진 평의원 (이중한 간사)

- 불참 평의원 : 유승화, 박상호, 박윤규 평의원

4. 회의안건

가. 보고사항

- 전회차 회의록 검토 및 회의결과 보고
- 아주대학교 학칙개정 내용 보고

나. 심의안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학칙 제4조(기구)의 별표 1 기구표 연구기관에서 “산학연공동기술연구소” 삭제

다. 학교 현안 보고 및 논의사항

- 학교기금의 Fund 투자에 관한 사항(김병관 총무처장 설명)
- 박종구 전 교과부차관의 특별채용 및 부총장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및 향후 재발방지 논의(교수회 대의원회 총무 안재홍 교수 설명)

5. 개회선언

의장 이일영 : 재적평의원 13명 중 10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우선 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평의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평의원회 보고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기획처장인 제가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차~1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질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

< 간서명 란 >

의 장



다. 먼저 제8차 질의내용인 윤병만 교수 및 한국어학당 소송과 관련 TF를 구성하여 강사인건비 지급 관련 책임소재 및 구상권 청구여부 조사/확인을 하기로 하였으나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승익 교수님과 상의해서 조직을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지금 변화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의원을 그만 두어서 대의원회 총무님한테 이 내용을 인계를 하였고 법과대학의 소병천, 이준섭 교수가 이것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9차 회의 때 질의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은 우선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즉 장단기 발전계획과 전략에 관한 자문입니다. 둘째,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제6조에 의하면 졸업이수학점 체제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과정 개편, 학사제도 도입 및 변경 등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과정 개편, 기타 대다수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교육과정 개편 등이 이에 해당되나 현재까지 관련 사안이 없어 자문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건입니다. 이는 잠시 후 김병관 총무처장께서 설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차 회의에서는 이사회에서 예산을 보고, 심의할 때 평의원회의 검토내용을 보고하고 심의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고 대학평의원회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가? 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평의원회에서 검토한 예산에 대한 자문내용은 교무회의와 이사회의 예산심의 자료로 첨부하고, 검토되고 있으므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대학평의원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교과부 질의결과 “대학평의원회는 법률에 근거를 둔 교육에 관한 대학의 최고 심의기구이며, 심의 목적은 의사결정의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대학의 장을 구속하지 아니하는 심의 기관임.” 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총장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토지구입명세서와 1998~2008 교비회계 법정부담금 집행실적 및 법인전입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토지 구입 명세서(2009 매입예정 포함)를 보면 본교의 경우 2006년 99,360천원, 2007년 1,870,480천원, 2009년 1,600,000천원(매입예정)이며 총액은 3,569,840천원입니다. 병원도 이 정도 금액이며 지금까지 본교와 병원은 절반씩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비회계 10년간 법정부담금 집행액 및 법정

< 간서명 란 >

의 장



부담금 전입현황을 보면 법원에서 1998, 1999년도에는 100%이상 전출하였으며 이후 대우사태로 몇 년간 전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전출금이 조금씩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교비회계(본교+의과대학)의 법정부담금은 226억원 정도이며 그 중 법인 전입금이 125억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액은 1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한 자료는 대외비이므로 회의 후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회가 5.22(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학년도 예결산(안) 자문일정을 검토한 결과 총무처 경리팀에서 4.29(수)까지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5.7(목) 대학평의회 자문을 거친 후 5.12(화) 교무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13차 대학평의원 회의를 5.7(목) 개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질문하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법정부담금을 줄 때 본교와 의과대학은 구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총액은 그렇다 치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과대학 부분은 법정부담금이 100%인데 본교 부분의 법정부담금 재단 지급은 20%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2008, 2009년도에 늘어났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본교 부분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재단 지급은 많이 부족한데, 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지정해서 넣어 주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예, 회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결국 병원에서 나온 수입을 재단을 통해서 넣는 것인지 실제로 재단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일영 의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그럼 지하상가 및 영안실을 재단이 관리하는지 의료원이 관리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영안실은 수입이 많이 줄었고 지하상가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총장 간담회 때 총장님께 여쭙 본 건데, 법정부담금 미지급 차액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라도 재단의 사정이 좋아졌을 때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강구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물론 법정부담금을 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오늘 저희 회의결과로서 100억원 정도의 법정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 두는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식 제안입니다.

의장 이일영 : 회의내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평의원 이순일 : 오늘 처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교비에서 136억원 정도가 토지구입과 법정부담금으로 나갔는데, 그 금액만큼이 법인에서 제대로 들어왔다면 이 136억원은 학교발전을 위하여 쓰였을 겁니다. '앞으로 법인의 형편이 좋아지면 법인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변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안을 주십시오. 제안 의사는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의사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변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대우학원이 형편이 좋을 때 100% 부담하였던 1998, 1999년도가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136억원은 재단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재단의 형편이 어려우면 교비로 충당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재단의 형편이 좋아지면 교비로 충당한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관련법규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교비회계(본교+의과대학) 226억과 법인부담금 125억원의 차액이 100억원이라는 의미입니까? 그리고 법정부담금은 학교와 재단이 50%씩 부담하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닙니다. 원래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기관에서 월급을 주면 교직원에게 4대 보험료라든가 하는 것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단에서 부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단이 모두 부담하였지만 법규에는 재단이 형편이 좋지 않아 부담하지 못할 경우 교비로 부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이것은 이순일 평의원이 정식으로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의원 이순일 :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일영 : 내용은 "재단이 지난 10년간 법정부담금과 토지구입비를 내지 못한 차액에 대하여 향후 재단에 우선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로 하면 되겠습니까?

< 간서명란 >

의 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식으로 통과해서 우리의 요구로 해서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이것을 요구사항으로 해서 받아 들이 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제9차 회의 때 기금운영에 관하여 정보공개 요청한 한 것에 대하여 총무처장이 오셨으므로 총무처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안녕하십니까? 총무처장 김병관입니다. 기획처로부터 학교기금의 Fund 투자에 관한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학평의회에 대학자금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큰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학교의 자금은 예산은 예산팀에서 수립하고 예산에 따른 자금집행은 총무처 구체적으로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자금의 공정, 신속, 안전한 집행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자금이라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기업체나 조직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대학은 연간 자금의 흐름이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동일(균일) 하지 않습니다. 연간 2회 등록금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가 그것을 나머지 6개월 동안 나눠서 사용하고 또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6개월간 쓰는 구조입니다. 경리팀의 기본업무는 자금의 집행이지만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데 그 자금을 그냥 금고에 두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자금의 운영·관리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의 극대화와 안정성이라는 2가지 측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자금운용을 해왔고 자금운용의 성격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안전성을 많이 추구하였고 위험성의 운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며 안전성으로 가면 수익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운영방식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의 위험성과 안전성의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에 대하여 고심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 외부적인 경제현황에 따라서 적자를 조절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자금운용한 것에서 발생한 수익을 계산해보면 저희가 안전성 자산위주로 자금을 관리했을 때를 제로베이스로 놓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추천을 바탕으로 판단한 안전성과 위험성의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운영한 결과의 수익을 비교해보면 안전성 자산으로 100%로 운영했다고 가정한 것에 비해 상당한 초과수익을 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학교 교비회계에 투입되어서 예산의 일

< 간서명 란 >

의 장



부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규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7 학년도는 2008년 5월에 결산이 되었고 거기에서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학년도 회계결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달 2009년 5월에 결산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개 2007학년도의 회계결산 결과와 거기에 그간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도를 가미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꼭 맞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큰 틀에서 이해하는 데는 손색이 없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기금 또는 적립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500억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7학년도 결산자료에는 505억원 정도로 되어있으며 올해에는 500억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7학년도 기준 저희 등록금 수입의 경우 학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연간 약 600 수십억원,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들어오는 돈이 연간 300 수십억원입니다. 그래서 등록금 수입이 양쪽 합쳐서 1,000억원에 가까운 900 수십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번에 걸쳐 나누어서 들어오므로 1, 2학기 똑같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매학기초 등록이 끝난 시점이 학교입장에서 시제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자금이 가장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지고 있는 기금 플러스 등록금 수입해서 1,000억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이 있는 자금의 피크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등록금 수입에 해당되는 수입은 1,2학기 각 6개월 동안에 집행되어 학기말에는 다시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금의 운영은 자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면 이자는 제로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들어오는 즉시 모든 자금을 빼냅니다. 그래서 등록금에 이자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금 수납시즌에는 매일 은행마감시간에 보통예금에 들어있는 계좌에 있는 자금을 다 인출해서 그것을 CMA, MMF 등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장되고 금리가 붙는 쪽으로 다 돌려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그 만큼만 인출을 해서 보통예금계좌에 넣어 그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조금이라도 자금운용 수익을 더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기초에 향후 6개월 자금수요를 월별로 자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자별로 자금수요의 흐름을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운 후 등록금 수입 중에 어떤 부분은 6개월짜리, 어떤 것은 3개월짜리, 어떤 것은 1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은행 정기에금에 넣습니다. 은행 금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자금수요예측에 따라 6개월, 3개월, 1개월 등으로 포트폴

< 간서명란 >

의 장



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입금할 때 비록 제일은행이 우리대학에 입점하고 있지만 제일은행만을 이용하지는 않고 5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입찰을 한다는 것은 우리대학의 자금규모가 상당하므로 그것을 10억, 20억 단위로 나누어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번에 정기에금을 하려고 하니 금리제안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쪽으로 한다는 원칙과 특정은행에 몰아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입찰을 통하여 받는 정기에금 금리는 개인예금 금리보다 늘 어느 정도 가산이 된 금리입니다. 보통 금리가 3.0%라면 금리입찰을 할 경우 3.0+알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리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은행에 정기에금을 넣어 두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자금을 운영 하는데 초과수익을 내라는 교내외의 무언의 압력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산전체 중 일정부분을 위험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투자성 자산운용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수년간 자산운영 결과를 보면 정기에금에 비해 상당한 수익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의 자산을 위험성, 투자성으로 운영하는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자산을 정기에금으로만 운영한다면 학교가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입원 중의 하나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지금까지 총무처에서는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그 비율 내에서 운영한다는 원칙 하에서 투자성 자산을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7학년도 기준으로 자금규모로 보면 500억원 플러스 알파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차례의 피크 금액이 각 500억원 들어와서 3월초, 9월초에는 1,000억원 정도의 돈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서 돈이 적을 때는 600억원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600억원 중에는 기금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외에 분납성 자금 등으로 미집행상태에 있는 돈이 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자금시제가 가장 낮을 경우 600억원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700억원대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드린 대로 500억원 플러스 알파는 기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기금은 몇 종류의 지정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발전기금이 있고 270 몇 억원 정도 있고 건축기금이 140 몇 억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연구기금이 있는데 연구기금은 교수님들이 외부연구비를 수주해오면 학교에서 Overhead를 일정비율(평균 17%)로 떼고 있지 않습니까. Overhead를 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조성된 기금의 일부는 교수들 연구 인센티브로 드리기도 하고 일부는 학교 내의 연구소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지원금으로 지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금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퇴직기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금도 역시 집행되는 형태를 보며 한꺼번에 큰 단위로 집행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칭 종합관 건축과 같은 것입니다. 올 7월에 착공해서 2011년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하2층에 지상 11층 연면적으로 보면 7,400~7,500평 정도 되고 거기에 800석짜리 강당 겸 공연장도 넣고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또 서관과 팔달관 사이에 강의실 위주의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런 대규모 건물을 짓다보면 전력배선도 보강이 되어 추가 기반공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사택도 2개의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2개의 콤플렉스를 멸실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시 가건물을 지어서 우리학교의 여러 가지 불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이번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약 370억원 정도 까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자세한 설명은 감사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평의회에서 총무처장님을 모시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사립대학에서 펀드로 인하여 많은 돈을 잃어버린 사례도 있고 해서 과연 우리대학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우려가 되어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이제 논의의 범위를 줄였으면 합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등록금을 금리입찰을 해서 안전성이 입증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위험성 투자의 내역입니다. 우선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여쭙겠습니다. 등록금 수입을 위험성 투자에는 쓰시지 않으시겠지요? 단기적으로 등록금 수입도 고위험성 투자 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앞에서 언급하신 500억원 플러스 알파 금액의 적립기금만 고위험성 투자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고위험성 투자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우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사실 제가 범위를 줄여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등록금 부분과 기금부분으로 분리하고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분리하여 운영한다고 하면 굳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분리 운영하는 것이냐로 따질 수 있겠는데 아마 별도의 은행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분리운영이 되는 것인지

< 간서명 란 >

의 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분리 운영은 장부상에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연중 자금운영은 은행예치 한다고 할 때에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평잔이 700억원 이상이 있다면 그중에서 어디까지가 안전성 자산이고 어디까지가 투자성 자산이나 하는 것도 보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안전하게는 은행 정기 예금은 안전성 자산이고 그 이외는 전부 투자성 자산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CMA, MMF 이런 종류의 계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면 비안전성 자산, 투자성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을 운영하면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위험성의 정도에도 상당히 다른 그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제가 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성 자산의 정의는 원금 손실이 없는 것이고,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투자는 위험성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연구비나 사업비를 받으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다른 자금과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BK자금은 항상 BK통장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안에서도 특정 사업비는 다른 채원들과 같은 통장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등록금 수입과 적립금이 진짜 분리운영이 안된다면, 고위험성 투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채원이 어떤 돈인지 모르게 되니까 큰일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손실이 등록금에서 난전지 단기적으로 적립금에서 손실이 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마지막에 최종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투자손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것을 위험성 투자라고 보고, 그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또한 등록금 수입을 거기에다 사용하는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해이십니다. 연구비 등은 당연히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런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금과 적립금도 원칙적으로 분리운영이 가능한 것이지요?

총무처장 김병관 : 그래서 제가 평잔 700억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00억원 중에

< 간서명란 >

의 장



서 포트폴리오 상에서 소위 말하는 원금이 깨질 수 있는 그런 투자성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0억원대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Fund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에금이거나 MMF계좌이거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처장님이 말씀하신 숫자 안에서 또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자문해 왔던 경험에서 저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Fund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예산과 결산에 Fund 잔고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Fund에 200억원을 넣었다면, 5월에 제시되는 결산서에 200억원이라고 기록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Fund로부터 굉장히 초과수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Fund를 환매하지 않았고 실제 시가 300억원 가치가 있다 해도 200억원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환매하면 200억원의 원금이 50억원 밖에 안되는 상태라도 200억원으로 기록되는 것입니까? 우리 대학이 고위험성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200억원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이 장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손해가 있으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손 털 때까지 저희가 모르는 건지 우선 그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의해서 전부 취득원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 원금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Fund를 환매를 하게 되면 그것은 결산에 반영됩니다. 결산에 반영되는 방식은 이자수익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자수익 계정에 반영됩니다.

의장 이일영 : 뮤추얼펀드가 10% 줄어도 처음 샀던 금액으로 기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총무처장 김병관 : 그렇습니다. 반대로 Fund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취득원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한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환매를 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되었건 손실이 되었건 무의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결산이라는 것은 시점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원칙을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2월28일, 2월 29일이라는 것은 임의의 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액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

< 간서명란 >

의 장



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여쭙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처장님께서 자금운용에 대하여 초과수익이 정기예금 수익보다 높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금리가 내려갔지만 예전금리가 8%인 시점에서는 만약 200억원 정도가 투자 원금이라면 이자수익만 해도 16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몇 배라면 이자 수익은 훨씬 큰 규모일 것입니다. 이전의 증시 활황기에는 원금의 100% 수익을 내기도 했다지만, 30% 수익만 냈다 해도 몇 십억원의 이자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자문을 하면서 이자수익에서 그런 액수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그 만큼 수익이 크지 않았거나, 아니면 수익의 처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저희가 결산자문을 하면서 이자수익이 왜 이렇게 많지 할 정도의 큰 숫자는 본적이 없습니다. 이번 5월 결산에서 지금까지의 이자수익들을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순일 평의원님께서 너무 기대치가 크셔서 그러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영해서 눈에 번쩍 뜨일 만큼 그렇게 큰 돈을 벌어오라는 주문처럼 들리고 하고 해서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계로 해보면 초과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제가 초과수익을 냈다는 것은 모두 실현이 되어서 교비에 편입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평의원 최인규 : 처음에 기금운영 문제가 나왔을 때 200억이라는 부분이 연세대에서 올해 터지면서 나왔던 이야기이고, 200억이라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기금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어디서 결정하는지? 어느 Fund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여기서 흔히 말해서 바닥을 치거나 수익이 없거나 많은 돈을 잃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누가 운영하는지? 이사회에서 운영하는지? 어느 Fund에 투자하는지? 사실 이 부분이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맥에 의해서 아는 사람의 Fund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 있는지도 확실히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억원을 투자했는데 만일 10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면 학생들의 등록금도 매년 일부분 적립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적립금에 대한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적립금을 구성하는 등록금이 어떤 등록금이나에 따라서 틀립니다. 실제로 학부생이 매년

< 간서명란 >

의 장



등록금을 내지만 반면에 학생교육비는 143% 이상 나갑니다. 등록금이라고 했을 때 학부학생 등록금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학생회장이 얘기하는 학부 등록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는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것이 143%가 교육비라면 43%는 어디서든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수익이 교수들이 연구비를 받아와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건 아닙니다.

평의원 이순일 : 특수대학원의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도 학부라는 것을 너무 인위적으로 축소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특수대학원에서 돈을 벌어서 학부 교육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대학원에 등록금뿐만 아니라 다른 수수료, 연수 등에서 돈을 벌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당장 들어와야 하는데 학교가 돈을 벌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정부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는 데가 특수대학원 밖에 없습니다. 특수대학원은 우리학교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대학원에서 돈을 벌어서 학부에 돈을 써서 143%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처장님 나름대로의 기준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판단한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금의 운영을 기금과 등록금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기준으로 정해 놓아야 나중에 원칙에 따라 책임소재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판단기준과 학교의 자체적인 자금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투자할 때 위원회가 있습니까? 한 개인이 합니까? 회사가 대신 해주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위원회를 과거에 운영했다가 아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위원회에 우리학교 교수님들과 외부의 Fund 운영하는 분들을 모셔서 운영한 것 같은데 이분들도 오셔서 일반적인 어드바이스만 하시고 결정적인 의사결정은 책임지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들 회피하신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이일영 : 처장이었습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는 총무처장 전결로 자금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증액) 투자가 전무합니다.

의장 이일영 : 재단에 작년에 개방이사로 이런 투자전문가가 한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역할이 있습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전혀 없습니다. 총무처 내부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개방이사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ING쪽의 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분은 학교의 자금 관리에 대해선 어떠한 관여도 없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그러면 학교에서는 총무처장과 경리팀장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네요.

총무처장 김병관 : 맞습니다. 총무처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2008년 이후로는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맨 처음 투자는 2008년 이전에 이루어진 거겠죠? 우리 처장님께서 맡기 전에 맡입니다. 여쭙보고 싶은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초과수익을 내라는 대내외 압력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직원들께서 어디로부터 압력을 느끼신 거죠? 맨 처음에 도대체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결정은 누가 언제 내린 것입니까? 이걸 학교의 미래 안전성을 담보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총장께서 투자결정을 하신건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려졌는지, 실제 어떤 상품에 투자하겠다고 누가 결정 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총무처장 김병관 : 그것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장부를 보시면 몇 년 전부터 투자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정 상품에 투자한 연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제가 과거 언제까지 그게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6년, 2007년 이 무렵에는 사실 그 주식 시장이 좋았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았고.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펀드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펀드에 들어가고 이럴 때입니다. 그 때 우리 학교도 펀드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마 상당히 장미빛으로 다들 그리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

< 간서명란 >

의 장



런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세계금융시장 불안으로 주식시장이 조금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신규투자는 할 생각을 당연히 못했고 기투자 되어 있던 것들도 그 당시 시점에서 흑자가 나있던 것들은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금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아직도 좀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2007년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 때 현명한 기관 투자자라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당시에 투자를 했고, 또 환매를 했으면 큰 수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환매결과는 이자수익으로 반영되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학년도 결산서에서 당해는 물론 그 전해에도 그런 이자수익이 있다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자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2월에 한 건 예산자문이었고 작년 5월에 한 건 결산자문입니다. 결산서에는 항상 두 해 자료가 나오므로 증시 활황이던 2006년, 2007년에 투자가 있었다면 결산자문 때 굉장한 이자수익에 눈에 띄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리스크는 있는데, 투자해서 실제적인 수익이 없었다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위험 투자는 더 이상 안한다는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이해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내역을 공개하며, 이제부터는 투자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 해서 누구도 걱정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대학평의원회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2007년 하반기부터 사실 주식시장이 좀 나빴지요. 이전 상당부분 제 짐작이긴 하나, 아마 우리가 투자했던 것이 시점상 일부는 적절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는 거의 꼭지 무렵 가깝게 됐던 시점에 결과적으로 보면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일에 학교 안에 교무회의, 대학평의원회에서 학교 자금관리 내지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지침을 명확하게 총무처에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침을 명확하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언의 압력들로만 존재했던 거죠.

< 간서명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저희는 고위험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투자하는 거 자체를 몰랐으니 초과수익을 내라는 압력을 저희가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압력을 넣은 사람은 따로 있고 저희는 모르니까 개선 의견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제가 말씀 드린 압력은 분위기죠. 누가 그런 걸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느 총장님이 나가서 돈 벌어와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아까 총무처장하고 경리팀장이 책임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직원인사이동에서 경리팀장이 바뀌었던데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원희 : 경리팀장이 바뀌긴 바뀐 것입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원희 : 하여튼, 경리팀장이 주도하시고 총무처장이 전결로 나가는 건데. 최근에 인사이동을 보면 경리팀장이 바뀌거든요.

총무처장 김병관 : 직원 인사 배경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가지만 의견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5월에 결산자문을 해야 하는 데, 결산서에 투자 사실이 명시되지 않고 또한 고위험 투자성 자산이 원금으로만 기재된다면 어떻게 자문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소한도 저희가 결산서가 적절했다라고 자문을 하려면 저희가 투자 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알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투자 원금이 이렇게 표시 되어있는데 이 중 얼마나 실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와 같이 말씀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산서를 보고 적절한 결산서라고 자문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고위험 투자와 관련해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해진 평의원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선을 위해 저희 평의원회에서도 참석해서 제도나 기준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학교가 개선안을 마련해 오셔서 다음 평의원회 때 발표를 해주실

< 간서명란 >

의 장



건지, 개선된 제도에서는 누가 투자결정의 주체가 되고, 또 고위험 투자 내용은 어디까지 공개할건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번 논의를 종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지난 2008학년도 내내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자금관리 관련된 시스템의 정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늘 써왔습니다. 그래서 총장께 보고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작년엔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총장님도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결산시점에서 보고를 받으신 부분 이외에는 사실상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장님께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예치한다거나 할 때에, 단순히 돈이 보통예금에서 MMF로 넘어가고 하는 것은 보고를 안 합니다만 상당 규모 이상의 자금이 정기에금으로 예치가 된다면, 신규투자를 최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신규투자를 할 경우에도 당연히 총장님의 결재를 받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투자에 관해서 실무적인 결정을 하는 총무처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금으로서는 신규투자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펀드들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환매를 할 것인가? 그런 결정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인선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기획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산과 관련지어서 교무회의가 5월 16일에 있고 그전에 평의회가 어차피 열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준비하신 개선안을 다음 평의회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자금운용 내부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오늘 미흡한 점은 다음 평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시는 내용에 대한 “개선(안)” 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 하는 것이지 평의회가 경제사정이나 실물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서 개선안을 토론하자는 보고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움직

< 간서명란 >

의 장



여야 책임소재를 묻거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선(안)을 말하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그것은 전문적인 건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저희 교수회에는 재무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결산 검토할 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현재 평가액도 제시를 해주시면 일부나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뿐만 아니라 평가액도 몇 분한테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기준에 따른 평가, 즉 실물 경제에 따른 평가는 기준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내놓지도 않은 것에 대한 평가를 당해서 세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오픈될 수 있을 내용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금을 어디에 넣어 놓았다 라는 정보가 유효한 것이지 어떤 시점을 잘라서 평가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허수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리고 허수를 뵈므로써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위원들에게 맡기고 전문위원들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상품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인지의 내용만 공개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어느 정도의 기금을 어디에 넣어 놓았다' 는 것만 공개되면 나머지 필요한 정보는 저희가 다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의원 유승익 :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겠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이해진 위원이 말씀하신 정도는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떠한 상품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투자 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의장 이일영 : 어차피 5월 7일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만나야 할 것 같은데 5월 7일 평의회 때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설명해주십시오.

총무처장 김병관 : 예

의장 이일영 :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 네 우리 시간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음 안을 위해서 교수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주동표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총무가 오시기로 하셨는데 일이 생겨서 진상조사 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부회장님께서 오셔서

< 간서명 란 >

의 장



박종구 전 교과부 차관의 특별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동표 교수 : 인사드리겠습니다. 화공·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교수인 주동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보고서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발췌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가급적 내용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교수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별첨 참조)를 읽으며 설명하다 -
주동표 교수 : 이상이 이번에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입니다.

의장 이일영 :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주동표 교수님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 들으신 대로 이런 일이 불행하게 지금 교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평의회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얘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여러 단과대학에서 성명서 발표 및 의견을 표시한 바 있고 대학교 대의원에 결의를 해서 성명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교수회에서 나온 성명서를 가지고 있을 거고, 총학생회에서 나온 것이 거기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장은 서문호 총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각 교수들에게 최근에 보낸 서한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도 좋은데,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회 총무님이 준비해주신걸 보면 교수회 성명서가 있고, 노동조합 성명서가 있고, 총학생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외부 평의원들을 빼면 대학평의회는 대학의 3개 기둥인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대표들이 앉아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대표들을 평의회에 파견한 세 개의 기관들이 모두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본다는 교내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명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번 사태가 학교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 안되도록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교수회를 대표한 평의원이기는 하지만 교수대표 평의원들 중에 현 교수회 대의원은 없기 때문에 대의원회에서 성명서를 내신 다음에 어떤 계획과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논의하는데 도움

< 간서명란 >

의 장



이 될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이 성명서를 교수회 이름으로 발표한 다음에 저희가 오늘 평의원회가 있기 때문에 총장과 이사장과 박종구 교수 세 분에게 이 성명서 내용을 보내 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4월 22일 까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전혀 아무 반응이 없었고, 총장께서 각 교수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그것을 대신했는지 모르지만 총장님으로부터 교수들에게 서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박종구 전 차관과 세 번을 만났는데 그쪽에서 요청해서 세 번을 만났습니다.

(박종구 교수와의 면담 내용에 대하여 이일영 의장이 설명하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저희가 모임을 가진 다음에 다음 주 중에 교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모일 것이고 5월 6일에는 대의원회 총회가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대의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의논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우리 입장을 얘기할지가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굉장히 미안한 말씀인데, 제가 중요한 국제회의 참가 일정이 있어 4시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원희 부회장님께서 마감을 하셔야 합니다. 4시까지 남은 15분 동안 얘기가 끝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비행기 시간 때문에 먼저 떠나야겠습니다. 만일 그때까지 우리 논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부회장님 주제 하에 할 수 있는 얘기를 마저 다 하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럼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대의 발전을 위해 대외업무를 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총장께서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역할에 가장 적합한 분인지 잘 찾는 것, 또한 그런 분에게 어떤 지위를 드리느냐 하는 것과, 대학사회의 근간이 되는 교수채용 특히 정년보장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대학이 비록 2000년도에 분규를 겪긴 했지만 사학 중에서 제일 깨끗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까닭은 교수임용에 관해서 한 번도 잡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대우학원 안에서 '교수임용

< 간서명 란 >

의 장



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인사가 없었다'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조금 전 보고해주신 내용에 따르자면 신입조교수도 아니고 정교수를 채용하는데 2월 9일에 회의를 시작해서 2월 12일 날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교수로 정년보장해서 채용하는데 사흘 만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걸 보통 대학사회에서 갖고 있는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유능한 교수를 한분 모시려면 몇 달 전부터 공고하고 후보를 찾고 후보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번 경우에는 사흘 만에 정년보장교수를 임용했습니다. 정상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임용한 사유로 제시된 것이 '그 분이 아주대학에 교수로 계시다가 휴직했기 때문이다' 인데, 정확한 사실은 휴직이 아니라 사직하신 분입니다.

의장 이일영 : 휴직 했다가 나중에 사직하셨습니다. 2004년인가 사직을 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사직을 하시고 완전히 다른 경력을 가지셨다는 것은 아까도 설명해주신 것처럼 연구나 공부를 계속 안 하신거로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과연 정교수로서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분은 재정학 담당교수였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분이 경제학과로 오신다면, 십년 전에 재직하셨으니 계속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근무한다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1년간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행정직 경험이 있으시니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받아들여거나, 혹은 과기부제2차관과 그 다음의 교과부제2차관도 결국엔 과학기술 담당이니까 과학기술분야의 관련 학과인 대학원 에너지 전공 같은 데서 임용되었다면 오히려 타당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공들에서 특별채용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전공 교수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원임용조건상 이분이 가장 우수한 후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전 재정학 교수이시고 행정경험을 가지신 분이 교육대학원교수가 되었고, 교육대학원에서 정년보장을 받았는데, 이게 대학사회에서 타당한 일인가 의문입니다. 이승호 교육대학원장님 관련 인사가 논란이 된 것도, 결국은 대학사회에서 다른 동료교수들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거절한 일을 교육대학원장이 나서서 사흘 만에 모양새만 갖추어 처리하고, 또한 이런 사태에 항의해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 중의 한분이 사퇴하신 기초교육대

< 간서명 란 >

의 장



학장 자리에 후임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채용 건과 관련하여 교수임용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 이에 항의하여 사임하신 분이 맡으셨던 교무위원 자리에 임명되는 이런 사태가 아주대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교수들에게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번 사태를 그대로 놔두면 학교는 2000년 초반처럼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이게 될 것이니,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조언이랄까 의견을 내자는 것입니다. 아까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대학이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 기대되는 조직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고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에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파악해서 의견을 내기 어렵다면 최소한 포괄적으로라도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해결책을 찾는 게 아주대의 장래를 위해서 좋겠다' 정도 의견표명은 해야 대학평의원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의장 이원희 : 시간제약도 있으므로 별도로 배부된 내용물이 여기 참여하신 평의원들 중에 교수, 직원, 학생들의 입장이 포함되어있고 대개는 그렇단 말이죠. 이런 평의원회를 통해서 동문회 의견이 어떠한지 듣고 웬만하면 의장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다음번 회의 일정을 빨리 확정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다음 번 회의는 어차피 아마 급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5.7 (목) 15:00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평의원에서 전체적으로 교수, 학생, 직원 공식적으로 의사표현이 있기 때문에 동문회나 다른데서 내용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평의원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문회의 의견은 어떠한 지 의견을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해진 : 동문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평의원의 입장으로 말씀하십시오.

평의원 이해진 : 평의원의 한사람, 그리고 동문의 일원으로써 말씀드리는데

< 간서명 란 >

의 장



이기 때문에 동문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동문회에서 이 건으로 전 회장 몇 사람이 모인단 얘기 전달을 받고, 저는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으나, '제가 동문회장으로 있을 때는 학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문회에선 공식적으로 간여하지 않는 것이 공식적 입장' 이었다고 말씀드리고, 향후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과 의견수렴만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박 전 차관계서 아주대학교에 대외 협력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협의 A,B,C,D 안 중에서 어떤 (안)을 택하나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정교수 정년보장을 해주는 정교수에 대한 특채라고 해야 하나 책임용이라고 해야 하나...

평의원 이순일, 의장 이일영 : 특별채용이죠

평의원 이해진 : 특채를 인정할거냐 아니면 여기 그 정년 보장되는 A,B,C,D 안중에서 그 내용의 입장정리만 하는 게 맞지. 지금 사태에서는 이걸 제사 전입니다만 이미 보직발령이 나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안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차관했던 사람에 대한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건 망신일수도 있으므로 서로 해하지 않는 선에서 중간 역할로 조정하는 식으로 평의원회 의견을 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임용이 완전히 무시된다거나 재단 측에서 표현된 바에 의하면 일방적인 부분도 있으나 제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 정도면 다른 곳에서도 초빙하려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절차가 심히 간결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면 추스르는 쪽으로 평의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게 균형 잡는 평의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이일영 : 글썽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결국은 이 사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액션을 안 한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 말씀대로 절충안이다. 그러면 결국은 돌아가서 이사회에 이걸 번복해야 합니다. 결국은 같은 문제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절충안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의장 이일영 : 네 현재로 지금 그렇게 밖에...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평의원회가 어느 쪽의 의견을 내서는 어떤 칼라를 불러오게 하는 그러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평의원회는 균형감각을

< 간서명란 >

의 장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잘 표현을 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게 해야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말씀하신 바가 조금 아까 (교수협의회 부의장님이신가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정리해 주신 겁니다. 저희 입장이 그쪽으로 갈수밖에 없다면 평의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저희 조직이 아닌 외부사람들에게 학내문제에 얽힌 조직의 칼라로 오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원희 : 시간상 제가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제가 지금 비행기 시간이 되어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을 부의장이 넘겨받다.)

부의장 이원희 : 이어서 계속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이 일과 관련지어서 교수회에서 직원노조 그리고 학생회에서 의사표명이 있었는데 총장은 지금 우리 별첨자료에 있는 사안으로 대신한 듯 하고, 박종구 전차관은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평의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좀 의견이 서로 다양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주후에 다시 평의원회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정리하셨다가 그때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아직 의사표현을 안 하셨던 다른 평의원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오상탁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의원회가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대표 그 다음에 동창회 각 부분 대표로 구성되어있는데 일단 교내 구성원 중에서는 아까 동창회에서 이야기 하신 그거에 의하면 동창회는 학교인사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지 않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교 구성원 중에 3주체에 대한 대표들이 평의원회 대표로 들어와 있고 굳이 지금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평의원회에서까지 또 그런 성명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차피 반영이 된 사항들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평의원회 구성원이 되면서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A란 얘기 했는데 듣는 분들에게선 B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동문회장이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동문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에도 학교의 인사 등에 대해서 성

< 간서명 란 >

의 장



명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저희는 4년 동안 성명서를 한 번도 안 냈습니다. 학교인사에는 관여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지금 동문회장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또 어떻게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의장 이원희 :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김찬영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안건 제가 발의를 드렸었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학교펀드 자금운용에 관해서도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 제약이 되어서 제가 못했었고 이 부분도 다음회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오겠습니다만 이제 학생회도 성명서가 나오고, 전직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총학생회 입장이 나왔지만 물론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조직이지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러한 문제가 되는 사실이 존재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이나 학생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보았는데요. 그 속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분분하고요. 제가 오늘 좀 더 가지고 가는 정보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제가 정관에 대해서 특별채용에 대한 정관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발의한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이유는 기초교육대학 학장께서 보직을 사표하시고 학생처장께서 보직사표를 하시고 제가 속해있는 사회과학대학장께서 보직사표를 하셨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절차라든지 과정의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이 공석으로 있는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제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총장께서 성명서를 내신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여기 총장님의 입장과 진상위원회 조사결과 여기 나와 있는 사실 관계가 간단한 말로서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정년보장의 정교수 임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직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휴직을 하시고 정교수 2년차에 휴직을 하시

< 간서명 란 >

의 장



고 이제 복직을 하실 때 그때 정교수에 보장 되는게 왜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경제학과가 아닌 다른 대학의 다른 계열의 전공에 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기 특별채용 20조 1항의 총장은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있거나 사계의 권위자를 특별 채용할 수 있다고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의 조사결과보고서와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이유가 사계의 권위자라는 해석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제가 특히나 이부분에 대해서 느낀 부분이 2007년도에 아주대학교 입시비리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때, 한겨레 신문에 아주대학교만 실명으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과부와 한겨레 신문 담당기자를 만나러 서울에 가서 느낀 점이 왜 아주대학교만 실명으로 거론했느냐 했을 때 교과부에 가서는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만나서도 학교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아주대학교는 굳이 왜 실명으로 거론되는가 문제가 정확하게 사안이 답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총장님께 전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학생회장 할 때부터 꾸준히 전의를 드렸던 부분이 내부에서 총장님이 처음으로 계셔서 학교를 안정화시키고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고 잘 운영해가실지는 모르나 대외협력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전의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러한 자리에 부총장께서 오셨는데 이러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희 입장에도 굉장히 혼선이 오는 부분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사계의 권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육부관련에 재직근무하시고 차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계의 권위자로서 충분한 입장을 가지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있어서 사직에 대한 사실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그 과의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저는 아주대학교 평생

< 간서명 란 >

의 장



에 졸업생이 되고 아주대학교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흠집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간에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회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각 부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물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희 :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평의원 김관균 : 이미 전 차관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미 상황이 진행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었고, 어떻게든 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수님 측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과 자기입장을 다 밝히셨고, 교직원 측에서도 의견진술을 했고, 학생 측에서도 학생들도 의견진술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평의원회에서 의견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해결 하려면 당사자들이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의 길은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평의원에서 의견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학교 발전에 학교에 누가 되지 않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서 의사결정을 좋은 결과를 내었으면 하였다는 그런 성명서 정도 하면서 그런 그 성명서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평의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재단과 총장님과 박전차관님께도 평의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줄때 어떤 안을 가지고 하는가 보다 좀 더 학교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서로가 좀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보여 주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저도 강의하는데 강의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주신거 백번 이해합니다. 교수로서의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고... 언급하신 논문 문제도 이해하고... 사실 전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교수평가제도도 상당히 왜곡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나는 왜 학생들의 강의출석이 교수평가에 들어가 있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합니다. 충분히 교수들의 입장, 학교의 입장을 이해는 하는데... 학교를 매니지먼트 한다, 학교를 경영한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입장, 경영자입장에 상호 교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

< 간서명 란 >

의 장



는 편법의 기술은 우리 규정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니지먼트란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도 있고, 또 대학사회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기준인 그런 내용들은 지켜져야 된다' 라는 것도 있고, 저는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부의장 이원희 : 지금까지 나오신 의견이 사실은 평의원회 이름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인가 여부에 관해서 의견이 또 많이 들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하자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또 하면은 어느 수준 할 것인가를 오늘 이 회의에서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찬영 위원의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의견을 더 fact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더 각자 알아보시고 의견도 나누시고 해서 2주 후에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근데 그 정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신문지상에서 떠들썩하게 외부에 떠들게 되는 경우, 저희는 전 박총장님 때 엄청 시달렸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는 평의원회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런 부분 정도로 명기를 하고 다음번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상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학생이나 직원이나 교수들은 각각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를 대표로 온 것이니 별도의 의견표명이 필요 없다는 점인데, 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기록에 남는 것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각자가 대표한 이 기구들의 성명서에 우리도 동의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 방법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서에 최소한도 평의원회에 참여한 교수대표, 직원대표, 학생대표는 동의하는 바이다' 라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기본적으로 이 성명서는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가 너무 걸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지 않도록 현명한 해결의 장을 찾기 위해 같이 모여서 논의하도록 권고하고, 기한도 2주 정도로 정해주자는 것입니다. 2주 후에는 우리도 다시 입장정리를 할 테니까, 본부와 다른 기관들의 대표들이 2주 동안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집중 해달라는 정도라도 우선 기록에 남기는 건 어떨겠습니까?

< 간서명란 >

의 장



부위원장 이원희 : 그럼 그렇게 기록에 남겨서 회의록을 총장, 이사장, 그리고 박종구 전차관에게 보내자.

평의원 이순일 : '2주 후의 다음 평의원회 전까지 긍정적인 사태의 진전을 우리는 바란다' 라는 의견의 전달입니다.

부위원장 이원희 : 지금 교내 3주체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전원 동의한다. 그리고 이 사태가 외부에 더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내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장과 이사장과 박 전차관은 Response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5월7일날 우리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입장표명을 바란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평의원 이해진 : 동의한다는 그 부분은 이번에 빼주시고, 충분히 입장을 우리가 이해한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표현을 동의가 아니라 세 개 성명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희 :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은 사실 결정사항은 없었고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회의록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희가 아까 앞의 이슈에 대해서 결의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130억원에 대해서 재단이 형편이 나아지면 대학에 최우선 지불을 요청 드린다는 건 말입니다.

부위원장 이원희 :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그냥 '우선' 으로 해서...

평의원 이순일 : 그 내용을 총장님하고 재단에 공문양식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사태에 대해서도 이런 성명서의 내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면 다음번 평의원회 전까지 희망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회신을 달라' 해서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정도 문안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평의원 김관균 : 성명서에 대해서 제 생각은 성명서를 이해한다는 표현이 동의한다는 표현으로 왜곡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과 총장님과 3자가 서로 이해하면서 양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학교를 위해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부위원장 이원희 : 우선 성명서 여부는 다음 회의 때 결정합니다. 다만 거기에 관한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는데 교내 3주체가 했던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다. 확인했다는 얘기는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동의(Agree) 또는 반대(Disagree)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정하고 아까 그 최우선은 아니지만 우선 노력한다는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고. 그거 회의록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상. 그래도 회의록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중한 팀장님. 회의록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간사 이중한 : 다음주 월요일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회 회의록 작성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평의원회 회의록은 실명으로 기록하므로 저희들이 적고 녹취록 가지고 또 다시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희 : 다음 번 회의는 5.7(목) 오후3시에 있습니다. 폐회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중한 : 잠깐만, 의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의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심의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희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말씀입니까?

간사 이중한 : 산학연 공동기술 연구소가 폐지되어 학칙에서 삭제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기구에서 별표1의 기구표 즉, 7페이지에 산학연공동기술연구소를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4월 21일 교무회의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원희 : 그러니까 연구기관 중에서 별표1 연구기관중 산학연공동기술 연구소를 그냥 삭제하는 겁니까?

간사 이중한 : 네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회의자료 3페이지에도 보고사항이 있는데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간사 이중한 : 예, 지난번에도 보고사항으로 올라왔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여 보고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일전에 기획팀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사안이 평의원회에서 심의는 말할 것도 없고 보고도 안 되고, 교내에 마치 평의원회

< 간서명 란 >

의 장



에서 승인한 것처럼 공문이 전달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던 문제인데, 대학의 중요 의안을 심의하는 대학 평의원회에 관한 규칙보다 하위규정이어야 맞는 규정류 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사안을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한다, 안한다를 저희도 모르게 결정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규정류관리규정을 근거로, ‘상세한 사항을 알 필요 없이 어디서 결정하면 대학평의원회는 보고만 받아라’ 하는 것이, 이게 납득이 안 간단 말씀입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부총장을 교무부총장으로 바꾼 일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정관이 개정되었으니 당신들은 몰라도 된다는 등의 일처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정관 개정이 대학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대학평의원회도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관개정 내용과 절차가 적절했느냐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내고, 적절하지 않았으면 다음번에라도 정관 재개정 의견을 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규정류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이번 건은 대학평의원회는 몰라도 된다고 한다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보고도 안 되고 지나가버리면 대학평의원회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부의장 이원희 : 우선 지금 보고사항 3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는 여기 관해서 심의 논의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다시 보고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부의장 이원희 :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근데 두 번째에 써놓으신 걸 보면, 관리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저희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근거로 대학평의원회는 심의 안한다고,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신 거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관리규정 어딘가에 있는 바에 따라 당신들은 몰라도 돼 이래버리고 나면, 대학평의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의장 이원희 : 근데 아까 보고할 때 이 페이지에 있습니까?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있는데 유권해석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할 수 있고 우리도 유권해석과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회의자료 2페이지에도 ‘심의사항은 기본적으로 학칙을 의미

< 간서명 란 >

의 장



하는 것이고 학칙이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학내 구성원 간의 협의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고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아까 학생대표들도 계속 제기 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학생대표들이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원희 : 그러니까 지금 3페이지에 있는 보고사항은 아직 저희가 접수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음번 회의 때 의장님 계시는 가운데서 다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안에 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그저 보고만 받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평의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보고가 접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이거 교학부총장하고 교무부총장하고 역할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부위원장 이원희 : 일단 논란이 분분하니까 논의를 좀 해야죠. 평의원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알고서 그냥 통과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보가 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별표에서 삭제하는 안건은 통과시켜도 되겠죠?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통과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폐회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폐회에 동의해주십시오

평의원 최인규 : 1페이지를 보면 보고회의지 4번에 대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란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면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한 규칙을 자문할 예정인데 제도적으로 논의가 진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졸업이수학점 체제변경 그리고 학사제도 도입 이런 것이 있어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학교에 자문할 수 있는 통로는 대학평의원회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기존에는 학칙 안에 학사운영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학사운영규칙은 평의원회 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자문이 되고 역할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학사제도가 바뀌는데 있어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다음 회의에 저희가 학생 측에서 내용을 만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부의장 이원희 : 지금 1페이지는 9차 회의 내용 중 4번 대학교육과정 운영과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내용을 평의원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다음번 안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부내용은 따로 준비해오겠다. 좋습니다. 이의없으시죠?

평의원 이해진 : 팀장님 이거 회의록 바인딩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사 이중환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폐회해도 좋겠습니까?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회의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간사 이중환 :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장님께 회의록을 전달하신다면 서명이 필요합니다. 동의해주신다면 오늘 서명을 하시고 회의록은 회람하여 검토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회의록은 회의록이고 저 평의원회 의장님 이름으로 따로 공문을 정리해서 보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항은 의장님이 부의장한테 위임한 걸로 알고 의장님 이름으로 하되 제 사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일정 확정: 2009. 5. 7(목)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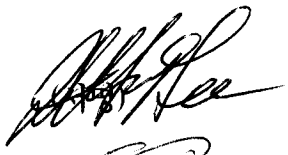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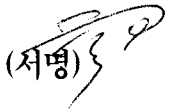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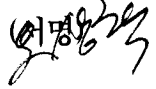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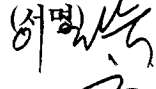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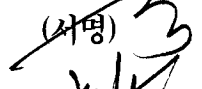



- 회의안건: 2008학년도 교비회계결산(안) 자문

첨 부: 교수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1부

< 간서명 란 >
의 장



2009년 04월 23일

의 장	이 일 영	
부의장	이 원 희	(서명) 
평의원	유 승 화	(서명)
평의원	이 순 일	(서명) 
평의원	유 승 익	(서명) 
평의원	오 상 탁	(서명) 
평의원	이 화 숙	(서명) 
평의원	최 인 규	(서명) 
평의원	김 찬 영	(서명) 
평의원	김 관 군	(서명)
평의원	이 해 진	(서명) 
평의원	박 상 호	(서명)
평의원	박 윤 규	(서명)
간 사	이 중 한	(서명) 
기 록	진 성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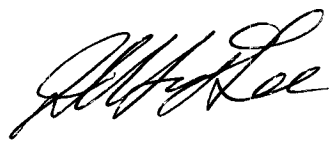
교수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들어가면서

박종구 전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이하 박종구 전 차관)이 2009년 3월 1일부로 본교 교육대학원에 정교수로 특별 채용되었고 동시에 교무부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3인의 보직교수는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보직을 사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수회 대의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하였으며 동 위원회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를 위임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교무처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학교와 서류 공개의 절차 및 범위를 논의한 끝에 3월 11일부터 특별채용 관련 서류를 열람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대학원 교수 4인, 교육대학원장(3월 13일), 교무처장(3월 16일), 그리고 총장(3월 16일)을 면담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 학교법인 사무실(울곡관 206호)에서 제274차 이사회 회의자료를 열람함으로써 사실 확인 작업을 마감하였고, 같은 날 그동안의 진상조사 결과를 교수회 대의원회(3월 18일 12시)에 보고하였습니다. 동 대의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추인하였으며, 교수회는 이를 지면을 통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 및 평가를 보고하는 대의원들의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대학의 권위를 상징하는 총장, 그리고 동료 교수들을 면담하면서 결코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의 확인은 대학 '거버넌스'(governance)의 근간인 교수임용 절차, 특별채용에서 총장의 권한, 그리고 재단과 대학의 관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우리대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매사가 조심스러웠고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한시도 조사위원들의 뇌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수회는 우리대학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장을 비롯하여 교무처장, 교육대학원장 및 교수들이 조사위원들의 면담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였으며, 대학본부 측과 재단 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요구대로 관련 서류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대학이 열린 행정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치면서 이미 발표된 바 있는 경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일을 2월 13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단이사회 심의안건이 2월 12일에 통보된 점을 들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3월 9일 이메일 참조). 그러나 실제로는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일이 2월 12일이었기 때문에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며 임용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울 것입니다.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관련 제도를 개혁하면, 우리대학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회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진상조사위의 사실 확인 내용을 소개하고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별채용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의 임용과 관련된 문제

우리대학의 교원신규임용규칙(제20조)에 의하면, 총장은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있거나 사계의 권위자”를 특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총장은 박종구 전 차관의 경력이 ‘사계의 권위자’에 해당되며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고 1월 28일부터 특별채용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과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듯이, 대학 및 대학원의 3개 전공(경제학, 공공정책대학원, 대학원 에너지전공)은 총장의 특별채용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교육대학원은 2월 6일 전공교수회의에서 결론내리지 못했던 특별채용 요청 건을 2월 9일 전공교수회의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교수임용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교무처장은 2월 6일에 교육대학원 전공교수회의에 참석하여 총장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일정(2월 12일)을 감안할 때 임용절차가 2월 11일까지는 종료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개최된 특별채용 관련 회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월 9일 11시 40분: 교육대학원 전공교수회의
- 2월 10일 15시 30분: 교육대학원 교원특별채용 심사위원회 회의
 - ※ 외부 심사위원들에게는 당일 12시경에 전화로 심사위원회 소집을 연락하였으며, 회의 장소는 외부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소속된 서울 소재 모 연구원 원장실이었음
- 2월 11일 11시: 교육대학원 전공교수회의(심사결과 보고 및 동의)
- 2월 11일 15시 30분: 신입교원선발위원회
- 2월 12일: 교원인사위원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책결정의 논리적 선택지를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리해두고자 합니다. 대학본부 측은 박종구 전 차관을 정교수로 채용하여 우리 대학의 약점인 대외협력 기능을 보완하고자 의도한 것(C)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회(2월 20일)에서 총장이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 다만, 대외협력부총장은 특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는 안(61조 <2안>)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보아 대학본부 측은 어느 시점부터는 대외협력 보직이 부총장에 해당될 경우 계약직 특임교원으로 임명



하는 것(B)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C 안을 상당히 진전시킨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왜 B 안을 지지했는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단 측은 대학본부 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2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이사회는 B 안의 대안으로서 D 안을 밀어붙였고 더 나아가 대외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교무'부총장 직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변경된 제도에 의하면, 부총장은 정교수 또는 부교수로 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외협력의 강화를 위해서 초빙할 수 있는 분은 학자 군으로 압축되기 때문에 '인재 풀'(pool)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학본부 측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맞부딪치게 된 것입니다.

<표 1> 정책결정의 대안

교수직 종류	보직의 종류	
	별도의 보직 (예컨대, 총장 특보)	대외협력 부총장 (이사회 교무부총장 변경)
계약직(특임교수)	A	B
특별채용(정교수)	C	D

설령 C 안이 관철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대학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사실, 박종구 전 차관을 특별채용으로 임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에서 1998년에 휴직한 이후 연구논문이 한 편도 없었기 때문에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쌓은 분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차관급 1년 2개월) 및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10개월) 직을 포함하여 정부 관리로 11년 간 재직한 경험을 두고 박종구 전 차관을 '사계의 권위자'로 분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의 경력을 소유한 분을 '사계의 권위자'로 분류하는 것이 무리인 것은 우리사회의 각 분야가 매우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첫 단추를 잘못 꿴기 때문에 정교수 임용과정에서 일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점들을 일일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구 전 차관은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재정학 담당교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은 경제학과가 임용 제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을 때 특별채용 시도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원은 경제학과에 문의함 없이 교육행정/대학행정 전공교수로 초빙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특별채용의 취지를 감안하면, 경제학 전공 교수에게 교육행정/대학행정 관련 강의와 논문지도를 맡



간다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으로 약 10개월 재직한 경력을 근거로 이 업무를 부여한 것은 우리 대학사회의 규범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임용되기 때문에 박종구 전 차관은 보직을 마친 이후 적어도 10년이 넘는 동안 교육대학원에서 연구와 강의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종구 전 차관은 이 분야의 경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원의 심사위원회는 면접평가를 실시하기는커녕 이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심사위원회는 평가기준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연구업적물을 살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력서 상의 과거 연구실적표 만을 보고 심사위원별로 연구실적 평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교수초빙을 위한 심사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2인의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고 교외의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심사를 하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원심사임용규칙 제20조는 특별채용의 경우 학문적으로 탁월한 분이거나 사계의 권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심사절차의 상당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실적평가(11조)와 기초/전공/면접 심사(14조)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총장이 문서 또는 구두로 사전에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으며, 심사위원회 역시 권한위임 사항에 대해 대학본부 측에 문의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보직교수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종구 전 차관의 임용이 특별채용의 취지에 어긋나며 2월 20일 이사회 일정에 맞추어 역순으로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한 것이 무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나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대학원장도, 교육대학원의 이번 특별채용이 우리대학의 규범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임용 절차가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총장직 신설과 관련, 재단 측의 일방적 처사 문제


박종구 전 차관의 특별채용 건에서부터 불거진 문제가 우리대학 발전의 발목을 잡고 대학사회의 기강을 와해시키는 사태로 번지게 되는데에는 재단 측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본부 측은 <표 1>에서 A, B, 또는 C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학본부 측은 제 274차 이사회(2월 20일)에서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 다만, 대외협력부총장은 특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는 안(61조 ③항 <2안>)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총장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



수 또는 부교수로 하여금 부총장 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D의 대안을 관철시켰습니다. 더구나 대외협력부총장 직제를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학부총장 직제를 교무부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대학본부 측이 본래 의도한 바를 왜곡시켰습니다(61조 ③항 <1안> 참조).

대학본부 측이 대외협력 관련 보직을 신설하고자 한 원래의 취지는 우리대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로비스트 성격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성격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대학 내에서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초빙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학문적으로 탁월하거나 사계의 권위자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단 측은 대외협력 보직 또는 부총장 직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총장의 주장을 무시하고 오히려 포괄적 의미를 담은 '교무'부총장 직제를 신설하여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을 뿐만이 아니라 부총장을 정교수 또는 부교수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부총장을 연구와 교육 수행의 역량이 있는 정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정함으로써 대외협력과 관련, 학계 밖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박종구 전 차관은 '교무부총장(대외협력업무)'이라는 이상한 직함을 가진 부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재단 측과 대학본부 측 사이의 견해 차이를 임시로 봉합한 것에 불과하며 '왜 외부 전문가에게 부총장직과 함께 (정/부)교수직을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 본질을 감춘 것이며 적절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재단 측이 대학 운영 원칙을 거스르며 일방적으로 부총장 임명 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처사입니다. 그동안 재단 측은 법과대학의 로스쿨신청, 강의공간의 확대를 위한 건물신축, 의과대학의 확장 등 대학의 주요 안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대학사회의 속이 타들어갈 정도로 그야말로 신중을 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274차 이사회는 교무부총장 직제 신설을 위한 정관개정, 박종구 전 차관의 정교수 임명, 동 인사의 교무부총장 임명, 부총장 업무 관련 직제규정 등 네 건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처리하였습니다. 더구나 회의록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부총장 임명은 정관상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 46조 3항에 의하면, 부총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74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총장이 부총장의 임명을 제청하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총장 대신 스스로 제청하여 교무부총장을 임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됩니다. 재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총장 및 교내외의 전문가들과 상의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품격 잡힌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단 측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박종구 전 차관의 부총장 임명 건을 강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학사회의 규범과 상식에 심히 위배되는 처사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사실을 확인할수록 의문은 오히려 증폭되었습니다. 총장은 뚜렷한 정책방향 설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3월 1일 임용을 목표로 초빙절차를 서둘렀는가? 왜 박종구 전 차관을 정교수로 특별 채용하는 절차를 밟았으면서 정작 이사회에는 대외협력부총장을 특임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안을 지지했는가? 관련 보직교수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왜 총장에게 강력하게 조언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들지 않았는가? 신중함으로 일관하던 재단 측은 교수사회의 반발을 뻔히 예상했음에도 왜 이번 일에는 신속하고도 대담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가?

일련의 의문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게 합니다. 박종구 전 차관은 막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제3의 권력이 대학본부 측과 재단 측에 모두 작용한 것은 아닌가? 따라서 인과관계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허위적'(spurious) 관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건,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재단 측과 대학본부 측의 처신으로 인하여 우리대학 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교직을 10년 넘게 떠나 있던 전직 관료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그것도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희박한 분야에 임용한 사실은 우리대학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인사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이렇고서야 어떻게 대학이 앞으로 젊은 교수들에게 연구 매진을 독려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한국 대학의 젊은 교수들이 과거보다 현격히 많은 양적 수준의 연구와, 동시에 높은 질적 수준의 교육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권위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은 제도의 틀을 잡아가면서 의미를 공유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정체성은 사회에 발전의 동력을 불어 넣습니다. 권위는 바로 이러한 가운데 오랜 세월을 두고 서는 것입니다. 권위가 붕괴되면 사회 구성원은 의미와 정체성을 상실하며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수회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재단으로부터의 대학 독립성과 자율성이 붕괴되



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정서가 우리대학 사회에 널리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교수회는 모두가 열린 마음을 견지하고 대화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새로운 발전의 돌음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